

정가 라운지

도의회 예결위 내년 예산 57억 삭감

○전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신윤식)는 14일 포틀러원(F1)대회 경주장 진입도로 건설 등을 위한 707억 원의 지방채 발행 등을 포함한 내년도 전남도 예산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 담고 있다"며 "무엇보다 지난 1997년 5·18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정부 주관 기념식에서 공식 추모곡으로 채택해 부른 기념곡이다"고 밝혔다.

남구 금고금 논란 확산

○광주 남구 구 금고 선정과 관련, 황일봉 남구청장이 '금고지정심의위가 월권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일부 심의위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성과기인 지원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4일 양혜령 의원(민주·동구1·사진)이 대표 발의한 '광주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 의결했다.

"정당공천제 폐지 검토를"

○한나라당 박재순 최고위원은 14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5·18노래 철회를"

○광주시의회는 14일 국가보훈처의 '5·18노래' 제정 방침과 관련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호남권 미래 성장산업 1,800억 투입

산업지원단, 태양광·광융합 등 67개사업 추진

광주시와 전남도, 전북도도 이뤄진 '호남광역경제권'이 모두 1천800억 원을 투입해 태양광, 풍력, 광융합 등 67개 미래 성장동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3일(현지시간)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밀라노에서 유세 도중 군중 속에서 있던 마시모 타르타글리아가 던진 조각상에 얼굴을 맞아 이 2개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고 있다.

'집회 참석' 伊 총리 성난 시민에 봉변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가 13일(현지시간) 밀라노에서 열린 집회에 참석했다가 시위자에 의해 얼굴을 맞고 피를 흘리는 봉변을 당했다.

원으로 실려갔다고 전했다. 총리의 한 보좌관은 수천명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을 마친 베를루스코니 총리가 상처 치료를 위해 급히 승용차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말했다.

투스코니 총리의 가까운 맹방인 움베르토 보시는 "그들이 총리에게 한 짓은 테러행위"라고 비난했다고 ANSA 통신이 보도했다.

"문화경제도시 광주 만들겠다"

정동채 전 장관, 광주시장 출마 첫 공식 선언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은 14일 "광주를 창조적 문화경제도시로 건설하겠다"며 내년 광주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민주당 광주시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가 경제를 살리고 경제가 문화를 살찌우는 창조적 문화경제도시로 광주를 탈바꿈하기 위해 지난 10여년 동안 준비해왔다"며 "문화와 관광, 일자리와 먹을거리를 창의적으로 연결해 문화와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은 구체적 방안으로 "광주 문화관광공사"를 설립해 광주를 문화·관광거점으로 발돋움시키고, '문화산업인력지원센터'를 만들어 광주의 우수한 젊은이들을 문화전문가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남부권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안으로 '남해안고속전철'을

건설해 산업물류, 문화관광벨트로써 서남부권을 연계하는 유통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돛구장 건립과 관련해 "돛구장이나, 개방구장이나의 문제가 아니라 돛구장과 신도시 개발이 문화중심도시 개발 계획과 상충하는지 조화를 이루느냐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광주공향의 무안공항 이전에 대해서는 "광주공향은 존속시키는 게 좋지만 만약 이전한다면 군사공향과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50년 광주 출신인 정 전 장관은 광주 살레시오고와 경희대 국문학과를 졸업했으며, 3선 국회의원과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문화관광부장관 등을 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압류 北 무기에 조기경보기 타격 미사일"

뉴욕타임스 보도

미국 정부가 북한산 무기 운송 혐의를 포착해 억류한 그루지아국적의 수송기에는 이른바 '공중조기경보기 칼라'로 불리는 미사일이 실려 있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NYT는 14일 인터넷판에서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수송기의 화물칸 사진을 살펴본 미국의 무기 전문가가 말을 인용, 'K-100'이라고 쓰인 상자들이 보이는 것으로 미뤄 이 무기는 미국, 이스라엘 등이 운용하는 공중조기경보기 타격용 미사일인 K-100 미사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미 버지니아주에 소재한 군사문제 전문매체 '글로벌시큐리티'의 미사일 전문가 찰스 P. 빅 연구원은 NYT와 인터뷰에서 상자 위의 표시들이 정확하다면 러시아가 개발한 공중조기경보기 타격용 미사일인 K-100일 것이라고 말했다.

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진 속에 보이는 미사일 겹포장의 제원이 K-100의 제원(폭 40cm, 길이 6m)과 일치한다면서도 자신의 말이 "단지 추측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언론들이 보도한 사진에는 미국 정부가 억류한 그루지아 국적 수송기의 화물칸에 'K 100'이라고 쓰인 상자, 상자 겹면에 '78' '83' '86' '87'과 같은 일련의 숫자들이 보인다.

빅 연구원은 그러나 사진 속에 보이는 이 무기 상자에는 하마스나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종류의 소형 로켓이 적재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미국 정부의 북한 무기 압류 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를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고도 공격적으로 이행하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광주시 행정만족도 '우수'

광주시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시에 따르면 시가 전문 리서치기관에 의뢰해 올해 1월1일~10월 30일까지 시민 2천770명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에 대한 종합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지난해에 비해 5.0% 상승한 85.3점으로 나타났다. 정책 만족도의 경우 지난해보다 8.3% 상승한 74.7점으로 집계됐다. 정책 가운데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광주 구현'을 최고 정책으로 꼽았고, 이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 '고품질 수돗물 안정적 공급' 순으로 평가됐다.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Eye Elisia) eye clinic, featuring contact information and service details.

Advertisement for '대리점 및 지사 모집' (Franchise and Branch Recruitment) for a company, listing requirements and contact info.